

日本 天壽國曼茶羅繡帳 服飾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Costume of Japanese 天壽國曼茶羅繡帳 (tiānshòuguómànchároxìùzhàng)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미자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an's Univ.
Prof. : Kim Mi Ja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i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dress and ornaments of Cheonsuguk Mandara Sujang (天壽國曼茶羅繡帳, a folding screen of Japan in the 7th century) with that of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of the ancient Korea. The style of dress, and a way of wearing dress and ornaments for female and male appeared in Cheonsuguk Mandara Sujang were same as that of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of the ancient Korea. The formula of wearing dress in a two-pieces were also identical with that of Korean. Many Japanese scholars also do not deny that the dress and ornaments of Cheonsuguk Mandara Sujang were affected by that of Korean peninsula which had an important effect on cultural and ethnic customs of Japan.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dresses in Cheonsuguk Mandara Sujang are Korean clothes which was imparted to Japanese by Korean live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I. 서론

본 연구는 일본 飛鳥時代に 성덕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天壽國曼茶羅繡帳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이다. 飛鳥時代는 백제 聖明王이 불상·경전 등을 보낸 538년부터 大和개신(645) 전까지의 울령제 국가의 준비기간으로 大和조정이 磯城

으로부터 飛鳥로 옮겨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飛鳥時代라고 한다. 飛鳥文化도 한국의 도래인이 만든 문화이며 복식 측면에서 飛鳥時代의 문화를 조명해 보면 이식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를 민두기는 "도착 문화의 성장과정의 열매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移植文化라 해야 할 것이다. 그 문화의 이

식 주체가 중앙정부(聖德太子) 자체요, 집권세력(蘇我氏) 자체였다. 이것은 그 이식주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¹⁾ 라고 하였다.

飛鳥時代의 복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天壽國曼荼羅繡帳에 나타난 복식을 분석 비교하여 도래인이 입고 간 복식임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시대 범위는 일본 飛鳥時代와 한국 三國時代이다.

연구 방법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복식을 분류 비교하여 일본 복식에 나타난 한국 三國時代 복식 요소를 추출하는 비교 분석 방법을 택하였고 형태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찰 대상은 일본은 天壽國曼荼羅繡帳, 한국은 고구려 벽화(4-6C)와 삼국의 사신도(使臣圖) 등이며 문헌자료의 연구도 병행하였다.

선행연구²⁾는 天壽國繡帳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제작동기, 제작자, 크기, 옷감, 자수, 복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복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한·일 복식 비교 연구는 없으므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飛鳥時代의 사회·문화적 배경

일본의 6世紀 末부터 8世紀 末에 걸친 약 200년간의 시기는, 日本이 율령제 국가가 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왕권 세습의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推古天皇 11년(603)에 처음으로 冠位 12階를 정했고, 聖德太子 12년(604)에는 헌법 17조를 제정하였다. 중앙집권체제는 大和 2년(646)에 발표된 大化의 改新으로 확립되었다. 天智天皇 10년(671)에는 日本 최초의 법전(近江令)이 완성되고, 大寶元年(701)에 다시 정비한 大寶令을 발표 시행하였다. 또한 遣隋使(607, 608, 614)와 遣唐使(630년부터 894년까지 18회)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隋와 唐의 文化를 받아들여 文武天皇 13년(685)에 새로운 양식인 唐의 袍(團領)가 朝服으로 채용되었다³⁾.

飛鳥文化의 核은 百濟에서 건너온 불교로서 聖德太子의 17條憲法에도 불교의 篤信을 강조하고 있다. 聖德太子는 스스로 불교학자이기도하여 『經義疏』라는 佛經注釋書を 쓰고 있다(法華義疏는 白筆草가 남아 있다). 佛敎興隆의 국가시책에 따라 각 씨족은 氏寺를 세웠는데, 聖德太子는 이에도 앞장서 四天王寺(大坂市所在)와 法隆社 등을 세웠다. 法隆社는 현존하는 세계 最古의 목조건물로서 불상과 공예품에 훌륭한 것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百濟系 예술가의 손으로 된 것이다. 金堂 안의 釋迦 三尊像과 藥師像은 止利佛師라는 作者를 나타내는 銘文이 있는데, 그는 『日本書紀』에 鞍作鳥로 기록된 百濟人이었다.

中宮寺나 山城의 廣隆寺의 半跏思惟彌勒菩薩像은 韓半島 예술의 영향을 나타내는 단아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 회화도 한반도인의 솜씨로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는 종이·먹·채색이 고구려의 승려인 曇徴이 전했다고 전한다. 현존하는 회화에는 法隆社의 玉跏趺子에 그려진 일종의 유희가 있고, 회화를 바탕으로 한 刺繡에는 中宮寺의 天壽國曼荼羅繡帳이 있다.

飛鳥時代의 사원양식은 거의가 백제계 양식에 따라 건립된 것이거나 7세기초에 완성된 蘇我氏의 氏寺인 飛鳥寺(法興寺)는 백제에서 온 寺工·瓦工이 세운 것으로, 鞍作鳥가 만들었고 현재 손상된 채로 전하고 있는 金銅釋迦佛像이 안치되었었다. 그 건축양식은 日本의 寺院建築에서 볼 수 없는 것인데, 똑같은 것이 고구려(北韓)의 淸岩里廢寺址와 백제의 東南寺址에서 볼 수 있다. 588년에 건설이 시작된 이 절이 완성되어 백제에서 가져온 솜씨를 봉안할 때 蘇我馬氏 이하 大官 100여 명이 百濟服을 입고 참례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음악으로는 백제에서 건너간 伎樂이 있는데, 노래와 춤으로 된 이 伎樂에 사용된 假面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⁴⁾.

2. 天壽國曼荼羅繡帳의 제작

天壽國曼荼羅繡帳(도 1)은 奈良縣 中宮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었다.

현존하는 수장은 길이 88.5cm(二尺九寸三分), 가로 82.7cm(二尺七寸四分)인데, 최초의 수장 단편과 새로 수놓은 鎌倉시대(14C) 수장 단편 총 90여편이 붙여진 것으로 江戸시대(17C)에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先學에 의하여 紫羅에 자수한 부분이 최초의 것이라고 밝혀졌다. 曼茶羅繡帳<도 1>은 上, 中, 下 3段으로 나누어졌고, 각각은 좌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紫羅의 부분은 上段 右구역에는 右端上의 葉狀形, 부처 옆에 拱手하고 서 있는 人物<도 2>, 부처 左側의 飛雲狀과 그 아래에 앉아 있는 5人, 上段 左구역에는 右端上의 鳳凰, 飛雲, 거북, 左端上의 月兔, 中段의 右구역에는 左端·上方의 부처와 인물<도 5> 中段的 左구역에는 右端의 2人<도 7, 8>과 左端의 인물 左下모퉁이의 蓮花 라고 한다. 紫羅 이외에 紫綾과 白平絹의 부분은 鎌倉시대에 놓은 수의 殘片이다. 紫羅에 놓여진 수는 실을 강하게 꼬았고 염색한 색은 선명하고 아름답고 떨어진 곳도 없으나 紫綾과 白平絹에 자수된 실의 꼬임은 느슨하고 색은 둔하고 변색되고 퇴색되었다. 또한 수법도 다르다⁵⁾.

林幹彌는 그간의 연구(小杉 卮, 小野 玄妙, 明石 染

人)를 참고하여, 당초 수장의 크기를 추정(도 11)하였는데 가로는 18,7776尺, 세로는 9,3888尺이다⁶⁾

원래는 2장의 휘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곳에 400자의 명문이 수놓아져 있고 그 全文이 《上客聖德法王帝說》이라는 책의 背書에 남아 있다. 기록의 전반에는 太子의 系譜가, 후반에는 만다라의 제작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天壽國曼茶羅繡帳은 성덕태자가 推古天皇 즉위 30년(622) 48세로 돌아가자 부인 橘太郎女는 太子를 그리워하다 궁중의 采女들에게 명해서 태자가 왕생하고 계신 천수국(극락)이라는 理想淨土의 모습을 자수시킨 것⁷⁾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東漢末賢, 高麗加世溢, 漢奴加已利이고 감독은 部秦久麻라고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만다라가 손상되어 法隆社의 寶藏에 보관되다가 鎌倉시대에 비구니 信如가 模本을 제작하였다. 또한 그림에는 거북 등 모양이 4개 남아 있어서 1개에 4자씩 '部間人公', '平時多至', '皇前日啓', '佛是真玩'이라는 문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法帝說에 전하는 명문과 일치하고 있다.

<도 9, 10>은 鎌倉시대의 모본인데 옷이나 인물의



<도 1> 天壽國曼茶羅繡帳(奈良縣 中宮寺 소장)



<도 2> 空手한 남자 紅衣·緣襷·朱黃 袴(天壽國曼茶羅繡帳 部分)



<도 3> 長袖·短襦·廣袴
장전 1호분
(고구려문화전 p.7)

<표 1> 天壽國曼荼羅繡帳의 人物 服飾

	人物	上衣	襟	袴	裳	帶	신	비 고	인원수
上 右	座人物1	黑上衣(옷깃·밑단 紅선)				비색대		실밥하는 것 같음	
	座人物2	상의(옷깃·밑단 선)			장?	대		3인이 모여	
	座人物3	상의		곤(풀어있음)		대		앉아 있음	
	座人物1	상의(옷깃·밑단선)				대			
	立 男	紅상의(옷깃·깃·수구· ·밑단 녹색선)	주황襟 (길다)	綠袴(바지부리 홍선)		비색대	황리	홍색관을 쓴 것 같음	
	座人物1	남상의(옷깃선)				대			
座人物2	청상의(옷깃·밑단선)								
座人物3	녹상의(밑단선)	홍슈							8
左	座人物	홍상의(밑단·깃· 녹색선)							
	座스님1	포+가사							
	座스님2	포+가사							
	座스님3	포+자주 가사(청선)							
	神 將		슈						
	立여인1	홍상의(밑단 녹색선, 선선)	홍슈		홍상: 티어드 스커트(tiered skirt)	대		바랑형	
	立여인2	홍상의(옷깃·수구·홍선 ·선선·밑단 선)	홍슈		백색 주름치마			바랑형	7
中	立여인1	녹상의(옷깃·수구·밑단 홍선, 선선)	홍슈		백색 주름치마			바랑형	
	立여인2	인투어(옷깃·선·밑단 자주선)			비색裳:티어드 스커트(tiered skirt)			바랑형	
右	좌여인1	홍색의(옷깃·깃·수구· ·밑단녹색선)				白帶			
	좌여인2	녹색의(옷깃·깃·수구 홍선)				白帶			
	좌여인3	청색의(옷깃·깃·밑선)				비색대			
	立여인1	홍색의(옷깃·수구· ·밑단 홍선, 선선)	홍슈		백색 주름치마			바랑형	
	立여인2	비색의(수구·밑단 홍선)	홍슈(길다)		백색 주름치마			넋모습	7
下	座여인1	상의(옷깃선)	슈		주름치마			큰머리	
	座여인2	청색의(옷깃선)		곤?					
	座여인3	상의(옷깃·수구 선)			주름치마				
	座스님	포+가사						수구 넣음	
	立스님1	포+가사(가사에 선)							
	立스님2	포+홍가사(가사에 선)							
	立스님3	포+가사(가사에 선)							
	座스님	포+가사							
右	立남자1	청의(밑단선)		세굴(부들 밑 에서 풀 땀)			신	등에 짐을 진 사람 지팡이 짚음	
	立남자2	상의(수구선)					신		
	중 치는 스님	포(옷깃·수구·밑단 선) 紅가사(청색선)							3
총계									31

□ 표시된 의복은 색, 형태가 뚜렷이 보이는 것임



<도 4> 무용총 무용인물의 履



<도 5> 綠衣·白裳·紅褶
(天壽國曼荼羅繪帳 部分)



<도 6> 雙楹塚 여인의 襦·裳
《韓國美術 1. 古代·高麗》



<도 7> 紫朱衣·紅裳(tiered skirt)
(天壽國曼荼羅繪帳 部分)



<도 8> 黑衣·白裳
(天壽國曼荼羅繪帳 部分)



<도 9> 鎌倉時代 模本 여자
여두衣·白裳·紅褶
(天壽國曼荼羅繪帳 部分)



<도 10> 鎌倉時代 模本 여자 黑衣·白裳·紅褶
(天壽國曼荼羅繪帳 部分)

표현이 최초의 것(도 2, 5, 7, 8)과 같다.

3. 男·女 服飾

天壽國繡帳에는 관인, 귀족 남녀, 서민, 스님 등 40여 인물이 등장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의복과 색 등 완전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은 8인, 上衣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6인이다. 男·女·僧服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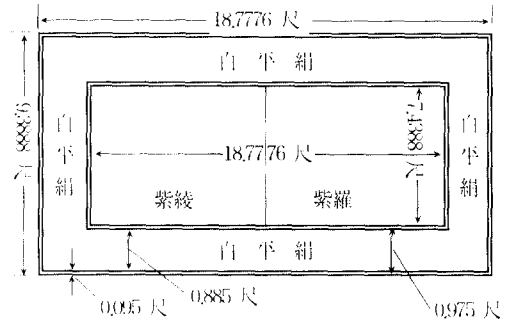
1) 男子 服飾

서 있는 사람으로 바지가 확실히 보이는 귀인과 서민 2인 총 3인(표 1 참조)을 고찰하면 홍색衣, 녹색袴 2부제이며, 허리에는 대를 매었고 褶을 착용했다. 귀인으로 보이는 공수한 남자(도 2)의 홍색衣는 둥근 옷깃, 窄袖, 엉덩이 길이고, 녹색 袴는 옷깃, 襟, 수구, 밑단에 둘러져 있다. 포백대를 앞에서 매다. 녹색 袴의 부리에는 홍색선이 있으며 대님을 매지 않았다. 袴 위에는 주황색 褶을 착용하였으며 신은 黃履를 신었다. 履의 형태는 앞이 약간 들리고 끝이 뾰족한데 고구려 무용총 벽화 무용인의 신(도 4)과 같다. 등에 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2인(도 12)은 수실이 떨어져 나가 밑그림만 보이는데 엉덩이 길이 窄袖衣와 무릎 밑에 대님을 맨 細袴과 履를 착용하였다.

衣·袴는 한국 襦·袴(도 3, 13, 14)와 같으나 옷깃이 다르다.

褶(도 2, 5, 6, 7, 8)의 형태는 袴나 裳 위에 입는 짧은 裳이라는 설과 넓은 폭의 帶라는 설이 있는데 짧은 裳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褶에 대한 最古의 기록은 《日本書紀》의 推古天皇 13년(605)으로 諸王과 諸臣은 褶을 입도록 했고, 天武 5년(676) 1월 4일 高市王子 小錦 이상 大夫 등에 衣·袴·褶·腰帶·脚帶 및 机·杖을 하사하였으며, 天武 11년(682)에는 位冠制와 함께 그 동안 사용했던 畢(まえも), 褶, 脛裳, 手襪, 肩衣 등을 폐지했으나 奈良시대에는 禮服이 부활되었다. 즉 養老 2년(718) 《衣服令》 各禮服條를 보면 '황태자 예복: 梁紫紗褶, 親王, 諸王 예복: 深綠紗褶, 內親王, 女王 예



<도 11> 수장 크기 추정도
《南都美術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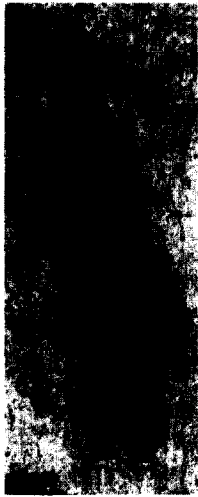


<도 12> 衣·細袴·무릎 밑에 대님
(天壽國曼荼羅繡帳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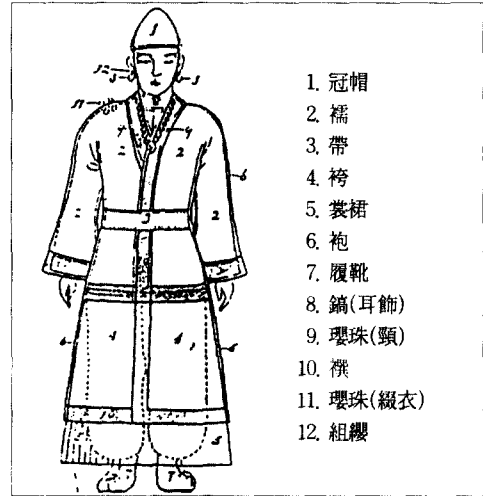
복: 淺綠褶, 內命婦예복: 淺縹褶'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창원의 인희 12년의 《曝涼使解》에는 御禮服冠 3개 御凡冠 1개外 각종 의복 중에 褶 1條(羅欄): 佐保太上天皇의 禮服으로 추정, 御細褶 1腰(羅欄): 佐保皇太后的 예복 중 하나라는 기록이 있다.

河鱈實英은 습을 "짧은 스커트 같은 腰衣"이라고 하였고, 増田美子는 "衣服令의 註釋書에 의하면 《令集解》의 <古記>에 褶은 婦人의 裳과 비슷하다고 한 것처럼 습은 여성의 裳과 같이 주름을 잡은 것이라



<도 13> 덕흥리 고분 細袴
(高句麗文化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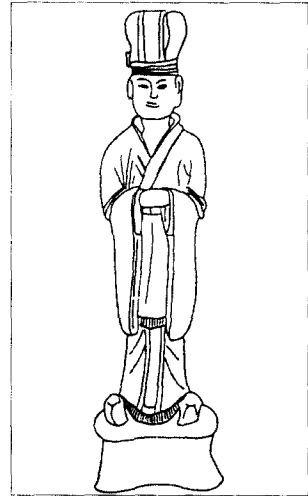
<도 14> 우리나라 古代 基本服飾
(李如星, 朝鮮服飾考, p.1)



<도 15> 侍國天王像
(동아일보 1996. 5. 31)



<도 16> 章懷太子墓 壁畫 高句麗 國使
《中國의 美術 II 圖27》



<도 17> 唐 文官 備의 褶과 下裳
《中華人民共和國 出土 文物展 圖169》

고 생각한다. 舊唐書 倭國 에는 衣服은 신라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7C 후반의 章懷太子墓 벽화에 보이는 新羅國使者像(도 16)은 上衣와 袴 사이에 褶狀의 것을 착용하고 있다”¹⁰⁾고 하였다.

또한 《源氏物語》夕顔의 券에 “褶은 치마의 일종

인데 당시는 평상시에 입지 않고 夕顔을 시중들기 위해 시녀가 명색만으로 입는 것”¹¹⁾이란 기록이 있다.

<도 2>의 褶은 여자들의 褶(도 5)보다 긴 편이어서 高橋建自는 “남자용 裳”¹²⁾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 18> 神將像
(天壽國曼荼羅繡帳 部分)



<도 19> 건물 안에 앉은 여인 크머리·衣·裳
(天壽國曼荼羅繡帳 部分)

상을 착용한 埵輪 남자상(도 24)을 보면 裳의 길이가 <도 2>보다는 길며 남자의 裳 착용 기록¹²⁾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습을 착용한 것은 신라 감은사 사리의(外)함에 조각된 持國天王裳¹³⁾(도 15)의 습이 最古 자료이다. 감은사는 신문왕이 681년 부왕 분부왕의 통일위업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 고구려벽화(4~6C)에서는 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습은 6C 이후에 착용된 것 같으나 일본 推古天皇의 襦着用습(605)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605년보다 먼저 사용했다고 본다. 고구려의 자료는 常懷太子墓 고구려 사신¹⁴⁾(도 16)이 습을 착용하였다. 中國에서도 唐의 文官備(도 17)이 착용하고 있는데 中國에서의 명칭에 관해 연구할 과제이다. 습은 唐에서 들어온 禮服用具의 하나로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도래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습의 형태는 짧은 주름치마이며 曼荼羅繡帳의 神將像(도 18)이 착용한 주름치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2) 女子 服飾

女子는 서 있는 6인과 3단 좌측 건물 안에 앉아

있는 2인 총 8인(표 1참조)을 살핀 결과 모두 衣·裳 2부제 차림새이며 건물 밖에 서 있는 여인들은 머리를 깎은 것 같다. 환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 차림새는 3가지로 衣·裳·褶·마랑을 맨 모습(5인), 衣·裳·褶 모습(2인), 衣·裳 모습(1인)이다. 상의는 모두 둥근깃, 착수, 엉덩이 길이이고, 이색선이 옷깃, 수구, 섶, 밑단에 둘러져 있다. 裳은 신이 약간 보이는 긴 주름치마(도 5, 8)와 옆선이 있는 주름치마(도 7, 9) 혹은 티어드 스킷트(tiered skirt)이다. 습(도 5, 7~10)은 모두 홍색이며 衣아래로 보이는 길이는 밑단 넓이와 같아 보인다.

건물 안에 앉아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 2인(도 19)은 수가 떨어져 나가고 밑그림만 보이는데 머리를 크게 올렸거나 큰 가발 같은 것을 쓴 것 같다. 우측 여인은 衣·裳 모습이고, 좌측 여인은 衣·裳·褶 모습이다.

색은 上衣 색은 홍, 흑, 녹, 연두, 미색이며, 襪 색은 녹, 홍, 자주색이고 裳 색은 홍색과 백색이고, 褶 색은 모두 홍색이다.

6인의 衣·裳·褶의 배색은 5가지 배색으로 ① 紅衣(綠선), 홍상, 홍습 ② 黑衣(홍선), 白裳, 홍습

(2人) ③ 綠衣(홍선), 백상, 홍습 ④ 연두衣(홍선), 백상, 홍습 ⑤ 미색衣, 백상, 홍습이다.

衣·裳은 한국 襦·裳(도 6)과 같으나 옷깃만 다르다. 여인 6인 중 5인이 바랑같은 것을 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별로 없다. 北村哲郎은 “襦로 보이는 것을 걸치고 있으나 하나와에 보이는 襦(도 20)와 같은 모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¹⁶⁾고 하였다.

襦는 《和各抄》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스끼(たすき)라고 읽는다. 《書言》에는 手襦을 多須根(たすき)라고 하였고, 《古史記》와 《萬葉集》에서는 水次를 “多須吉(たすき)라고 하며 어깨에 걸친다는 기록이 있다. 다스끼의 재료는 제사나 신성한 행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木綿을 사용하고 보통 노동시에는 길이는 襦 1條 四尺(內膳司, 造酒司), 六尺(內藏?寮)이라고 《延喜武》에 기록되어 있다.”¹⁷⁾

다스끼는 제사나 신성한 행사 혹은 노동시에 어깨에 착용한 끈(帶狀)으로 하나와 인물(도 20)이 착용하고 있다¹⁸⁾.

본 연구자는 끈(帶狀)이라기보다는 무엇을 넣은 한국의 바랑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입의로 바랑형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바랑은 “길가는 僧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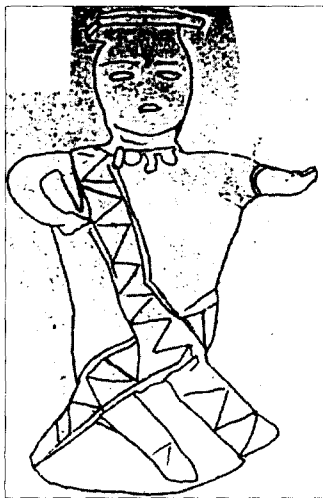
에 지는 자루같은 큰 주머니”¹⁹⁾를 말한다. 여기서는 등에 지지 않고 어깨에 걸친 것이 다를 뿐이다.

일본 高野山 金剛峯寺에서 겨울에 托鉢하러 나가는 修行僧들과 師僧(도 21)들이 왼쪽 어깨에 사각형 주머니를 매고 있다. 天壽國繡帳에서는 우측에서 좌측 옆구리에 오도록 맨 것이 다르다.

3) 일본 학자들의 견해

河鱈實英은 “남자(도 2)는 盤領 소위 둥근깃 상의이며, 허리에 대를 매었고 하의는 禪(바지)이다. 곤 위에 스커트 狀의 腰衣를 두르고 있다. 여자는 同様の 상의에 주름을 많이 잡은 치마를 입었는데 近代의 양장 스커트 같아 보인다. 남녀 모두 소매는 편안하고 불룩한 느낌이지만 唐 의복과 같이 넓지 않아 筒袖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남녀의 상의의 옷깃, 수구, 쇠, 밑단에 둘러진 선은 飛鳥時代 의복의 특색인데 이것은 고구려 의복의 특색”이다.

수장의 복장은 大陸系服裝이었고 南北朝와 唐風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덕태자가 죽은 후 곧 완성된 수장인데 이 시대는 당 초기로 당문화가 충분히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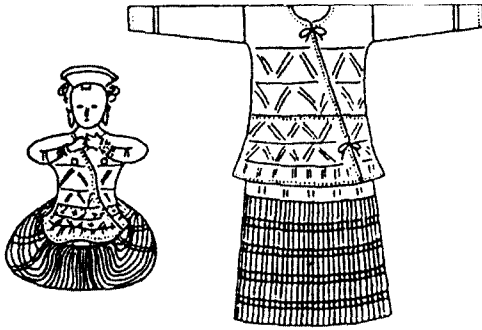
<도 20> 袈裟衣の女子 襦
《日本の美術 19》



<도 21> 일본 金剛峯寺條行僧
《弘法大師と密教美術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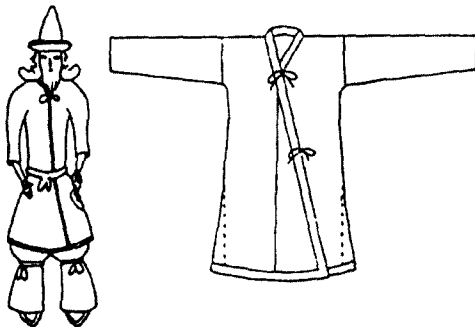
<도 22> 하나와 男衣·禪
《日本の美術 3》



<도 23> 하니와 女衣·裳
(小堀榮壽의 道輪 樣式 分類圖)
《衣生活 191》



<도 24> 胡座의 남자 끈은 깃 袴·裳·袴
《日本の美術 3》



<도 25> 하니와 男(농부) 長袴·袴
(小堀榮壽의 道輪 樣式 分類圖) 《衣生活 191》

지 않았던 시대이므로 이런 형태의 옷은 飛鳥시대의 복장이지 않았을까. 수장의 단편은 머리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쓰개나 머리형태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의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

推古天皇 11년에는 성덕태자에 의해 冠服色에 의한 位階의 制가 정해졌다. 이것이 冠位12階의 제도이다. 즉 12계를 관색으로 표현한 제도로 表衣色도 관에 따라다. 最高의 색은 紫, 다음은 靑, 赤, 黃, 白, 黑의 순이며 각각 농담이 있어 구분되었다. 그 당시의 冠은 후대의 관과 달랐다. 라는 太薩로 직조된 絹布로 만든 것이며, 綠을 두른 袋形(자루형)인 것 같다.

表衣의 재료도 이 이고 無地였다. 表衣의 것은 둥근깃이고 높지 않으며 소매는 筒袖였다. 여밈은 左으로 개정되었으며 바지는 白色이었다. 倭文織 帶를 앞에서 매어 늘어뜨렸다.

北村哲郎은 <도 2>의 복식을 “기본적으로 하니와의 衣襟계통을 착용하였는데 소위 胡服스타일로 보이나 소매가 넓어졌고, 袴의 넓이도 좁지 않으며 의와 끈 사이에 습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였다. 꽤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였다.

増田美子는 “飛鳥時代의 유일한 복식자료인 天壽國繡帳 인물의 복식은 하니와의 인물과 같은 양식인데 하니와 인물은 허리 아래 길이의 상의와 끈을 착용하고 足結을 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飛鳥時代의 남녀 복장은 하니와에서 볼 수 있는 유목기마민족계의 복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朝臣들이 새로운 습을 첨가하여 位의 변화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일본복식사를 다룰 때 曼茶羅繡帳복식은 기본적으로 하니와의 복장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니와의 호복전래설과 고유발달설을 정리하고 절충안을 제시한 杉本正年의 견해를 《東洋服裝史論考》에서 살펴본다. “하니와의 인물 복장<도 22~25>에 관해서 일본에서 가장 일찍이 주목한 자는 藤貞幹이다. 天明8년(1788) 《衛口發》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고, 寛政12년(1800)년에는 桂川中良이 《桂林漫錄》에서 이것을 논하고 明治시대에는 阿部弘藏과 烏居龍藏가, 大正期에는 和田千吉, 高橋健白, 浜田耕作 등이 적

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와 의복을 二部形式의 胡服으로 단정하고, 대륙계 기마민족의 호복계통에서 유래되었다는 호복전래설이 대세를 잡았다. 이것에 대하여 後藤守一은 昭和 초기 《上古時代衣服의 形式》에서 일본의 풍속 속에서 彌生시대의 横幅衣·貫頭衣로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했다고 하는 고유발달설을 제창했으나 지지자가 적었다. 戰後가 되어서는 江上波夫 이외에 猶態兼繁 등도 대륙전래설을 제창하고 있다. 필자(杉本正年)의 견해는 고유발달설과 북방 호복전래설을 절충한 방법이 되겠는데 … 중략 …, 호복은 흉노뿐만 아니라 널리 동북아시아의 수렵채집민족 사이에도 퍼져 있었던 복장으로서, 당시 東夷, 北狄이라고 불리워졌던 숙신, 부여, 말갈, 선비, 고구려 등의 복장도 모두 호복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호복이 彌生 시대 특히 後漢과의 교류에 의해 비로소 전해진 것도 아니며 古墳 시대에 기마민족을 정복함으로써 직접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아주 먼 3세기 이후 고유의 복장으로서 호복은 이미 일본열도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것이 彌生에서 古墳으로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여러 주변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 변화하고, 또 열도 내부의 기상환경에 적응하게끔 독자적인 창의연구가 더해져서, 하나와 인물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식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민족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반도의 모든 민족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받고 있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古墳시대 이후 7세기 경까지 일본 지배계급의 복장에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한국 도래인이 BC. 200년 이래로 彌生文化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복식도 이들이 입고 간 옷이라고 생각한다. 일본학자들은 평소 대화시에는 한국복식이라고 하면서도 논문이나 기사화된 글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을 하여 한국 독자로서 하여금 혼돈되게 하는 듯한 인상이 도처에서 보인다. 예컨대 한국반도라 하지 않고 대륙계 기마민족의 호복계통이라고 하여 중국이나 주변민족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杉本正年의 표현 중 반도의 모든 민족이란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등의 표현이며 3세기 이후 고유복장으로서 호복은 이미 일본열도에 존재했다고 한 것은 3세기에 한국 도래인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자는 “하나와의 복식은 도래인이 입고 간 한국인의 복식”²⁶⁾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4) 曼荼羅繡帳 男·女 衣服과 韓國 衣服 比較

曼荼羅繡帳의 남자 衣·褲(도 2)과 여자 衣·裳(도 5, 7, 8, 9, 10)은 한국의 기본복(도 14)인 襦·袴, 襦·裳과 같으나 다른 점은 옷깃이 곧은것이 아니고 둥근것이며 습이 상과 고 사이에 착용된 것이다. 습은 기타에서 다루고 의복에 대해서 논의한다.

남녀가 착용한 上衣 옷깃이 모두 둥근것(도 22, 23)이지만 없어진 수장에는 곧은것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 가설을 세워 본다. 그 이유는 하나와(5C~7C) 복장은 둥근것 상의와 함께 곧은것 상의 모두 착용하고 있다. 胡座²⁷⁾에 앉은 남자(도 18)는 首長層으로 한국 襦(도 6, 14)와 같다. 옷깃은 곧은것, 착수, 영당이 길이, 좌임, 문양 있는 선이 옷깃, 쇠, 수구, 밑단에 둘러져 있다. 또한 한국 長襦(도 6, 26)와 같은 상의를 농부(도 25)가 착용한 것으로 보아 곧은것 상의인 한국 襦는 上·下가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둥근것 上衣와 襦(곧은것 상의)는 上·下 모두 착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둥근것이 주로 착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설 1 : 한국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인은 겉옷으로 襦를, 내의로 둥근것 衣를 착용하는 습관이었으나, 어떤 사람들이 內衣로 착용하던 둥근것을 일본에서 겉옷으로 착용하기도하여 2가지가 섞이게 되었다.

가설 2 : 가야인은 둥근것을 한국에서 겉옷으로 착용하다가 彌生시대에 둥근것을 입고 도래하여 호족이 되어 권력을 잡고 있는 중에, 곧은것을 겉에 입는 습관을 가진 백제, 고구려, 신라인이 도래하여 2

가지가 함께 착용되었다.

가설 3 : 天壽國繡帳의 둥근깃 衣는 이 당시 보편적인 의복이었다. 그러나 대신들(혹은 백제계 대신들일지도 모르겠다.)은 백제 옷인 襦·袴<도 26>를 착용하고 있었다. 즉 飛鳥鳥가 건립되자(596년) 蘇我馬氏는 백제에서 가져온 사리를 봉안하고 大僧 100여인과 함께 백제옷을 입고 참여했다고한다. 여기서 백제옷을 입고 참여했다고 강조한 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의 옷과 차이가 있었기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제옷은 梁職貢圖의 百濟國使圖<도 26>와 같은 長襦·袴차림이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둥근깃 衣와 褲<도 2> 차림이었을 것이다.

또다른 뒷받침 자료는 수장을 만든 사람들 중 백제계 사람이 없는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東漢末賢과 漢如加已利는 백제·아야(阿耶)계 도래인, 高麗加世溢은 고구려계 도래인, 部奈久麻는 신라·가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다.

天壽國繡帳은 어찌된 일인지 삼국이 일체가 되어 만들고 있으나 法隆寺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되는 백제계 사람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를 우에다 마사아키는 일본에서의 불교란 飛鳥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되며 일본적인 불교가 아니고 백제계 불교와 신라계 불교를 고려해야 한다. 성덕태자의 죽음을 신라불교(성덕태자)²⁹⁾와 백제불교(蘇我씨)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달수는 서로 다른 불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얽혀 있음이 틀림없다. 645년에 일어난 大化改新은 신라계 씨족과 백제계 씨족의 대립과 항쟁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한다³⁰⁾ 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복식으로도 증명이 된다. 大化改新 후 백제계가 권력을 잡은 후 곧은깃 의복이 주로 착용. 계속됐음을 高松塚 女官<도 27>의 長襦. 남자 侍從의 袍의 옷깃이 모두 곧은깃이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天武天皇13년(685) 唐制인 縫腋袍와 闕腋袍가 채택된 후 단령 이외의 옷은 곧은깃으로 되어갔다.

4. 僧 服飾

1) 袍

포와 가사를 입은 僧 10人 중 서 있는 僧은 5인.



<도 26> 남경박물관소장
梁職貢圖 中 百濟
國使圖



<도 27> 高松塚 壁畫 女官
《日本美術全集 3. 圖4-9》



<도 28> 중지는 僧 袍·지주색 袈裟
(天壽國曼荼羅繡帳 部分)



<도 29> 고구려 僧袍·裳
무용총 벽화 <고구려문화권>



<도 30> 희랑조사상
<명인초상대감>



<도 31> 袍(奈良春日山 出土 土偶, 江馬
務, 風俗史 圖録-古代編, p.17)

앉아있는 僧은 5인이며 자수가 떨어져 나갔으나 형태는 알 수 있다. 다행히 서서 종을 치는 僧<도 28> 1인의 수가 남아 있어 형태와 색을 알 수 있다.

포는 착수, 길이는 신이 보이지 않게 길며, 선이 옷깃, 수구, 밑단에 있는데 실선이 있는지의 여부는 가사 때문에 보이지 않아 알 수 없다. 옷깃은 곧은 것으로 한국의 기본포<도 14>와 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스님<도 29>의 포와 같으나 길지만 길며 통일신라 희랑조사상<도 30>의 포와는 유사하다. 이는 한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면서(545) 승복도 함께 전래됐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袍를 착용한 하니와는 없었으나 유일하게袍를 착용한 土偶<도 31>가 奈良縣 石川郡 春日山에서 출토되었는데 한국의袍와 같다. 곧은깃, 左衽, 착수, 옷깃과 소매에 선이 있고 대를 매었다. 도래인이 일본에 착용하고 간袍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자는 小袖<도 32>의 원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⁰⁾. 江馬務도 이袍를 “小袖의 원류”³¹⁾라고 본 연구자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2) 袈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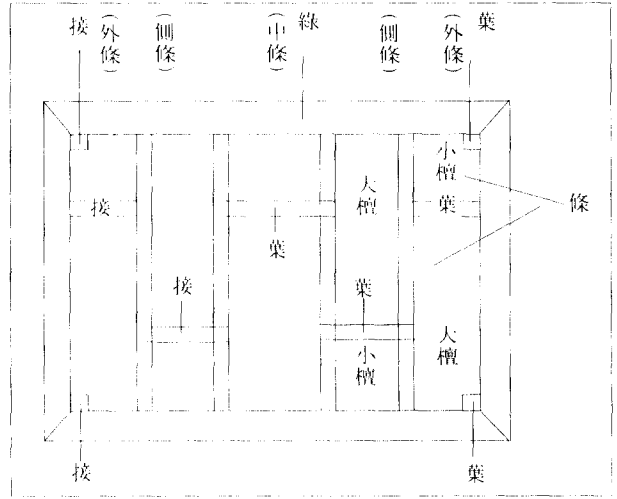
天壽國繡帳에는 10여명의 僧이 가사를 들렀는데

종치는 스님의 가사만 수가 남아 있어 색을 알 수 있는데 붉은색 계통이며 條<도 33>는 보이지 않으며 밑단에만 청색이 보인다. 청색선은 가사의 가장자리에 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사는 고구려벽화의 스님<도 29> 가사와 같아 보인다. 9인의 가사는 수가 떨어져 나가 색을 알 수 없으나 붉은색 기운이 남아 있는 것도 있으며 가장자리에 襟이 둘러진 흔적이 있다.

일본 最古의 가사 유물은 정창원의 소장품이다. 정창원 소장품은 756년 聖武天皇의 왕후 光明이 東大寺의 대불에 헌납한 물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때에 헌납한 600여 종의 물품을 기록한 목록이 「珍寶帳」 또는 「國家珍寶帳」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珍寶帳」의 첫머리에 일왕 聖武가 사용하던 9령의 가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珍寶帳」의 600여 종의 물품 가운데 일왕 聖武의 가사가 제일 중요한 물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珍寶帳」 기재의 9령의 가사 이외에도 정창원에는 7령의 가사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7령의 가사는 17~25조 가사로 대단히 크다. 17조 가사의 길이는 150cm, 폭 330cm이고, 23조 가사는 길이 372cm, 폭



<도 32> 江戸時代 서민의 고소데
《庶民의 服裝 p.314》



<도 33> 袷의 세분명(五條袷)
이춘계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727cm이다²²⁾.

III. 결론

天壽國曼荼羅繡帳에 나타난 복식과 한국의 삼국시대 복식을 비교 고찰한 결과 도래인(한국인)이 일본으로 입고 간 옷임이 밝혀졌다. 일본 학자들은 曼荼羅繡帳복식은 하나와에서 볼 수 있는 유복기마 민족계의 복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朝臣들이 새로운 습을 첨가하여 位의 변화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반도의 모든 민족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받고 있었던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古墳시대 이후 7세기 경까지 일본 지배계급의 복장에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 ① 남녀의 입음새는 2부식으로 衣襟, 衣裳 양식이다.
- ② 넓은 襟의 부리에 넓은 襟을 낸 袴는 상류층 남자가, 細袴는 서민이 착용하였다.

- ③ 긴 주름치마를 여자들이 착용하였다.
- ④ 袴를 착용하였다.(짧은 주름치마형이라고 본다.)
- ⑤ 衣의 옷깃, 襟, 수구, 밑단에 異色襟을 들렀다.

<표 2> 天壽國曼荼羅繡帳의 男女 衣服 分析

男女 袴	옷 깃 : 둥근 깃 길이 : 들부선 襟 : 옷깃, 襟선, 수구, 밑단에 이색선 帶 : 포백대 (女자는 매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袴	女 : 홍색 男 : 주황색 (女子 것보다 길다)
바 랑	주황색(여자만)
裳	주름치마 회선 있는 주름치마(혹은 tiered skirt)
袴	부리에 넓은 단 (홍색) 부름 밑에서 끈(足紐) 묶음 (서민)
僧의 袍	옷 깃 : 垂領 여 밑 : 左衽, 右衽 길이 : 땅에 끌림 襟 : 옷깃, 밑단만 보임 가 사

- ⑥ 衣에 布帛帶를 땀다.
- ⑦ 긴 袍와 가사를 儻이 착용하였다.

차이점은:

- ① 衣의 옷깃이 둥근것이다. 이 시대의 일반적인 형이나, 蘇我氏(백제계)는 곧은것 衣를 착용했다고 본다.
- ② 여자 裳 중 옆선이 있는 주름치마(혹은 tiered skirt)가 있었다.
- ③ 帶는 여자 衣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작은 끈을 이용하여 여몄는데 다습한 기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남자의 帶 사용은 武裝과 騎馬에 편하기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바지는 무릎 밑에서 足結(끈)을 땀다. 다습한 기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 ⑤ 바랑형을 어깨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비스듬히 매었다.

■ 주 및 참고문헌

- 1) 민두기 편저 《日本の 歴史》 지식산업사 1976 p.46
- 2) 주5) 참조
- 3)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昭和55年 p.24
丹野郁 編 《綜合服飾史事典》 雄山閣 1980 pp.6 ~ 7
久野健 辻惟雄 永井信一 共著, 秦弘燮 譯 《日本美術史》 悅話堂 美術選書11 1978
- 4) 민두기 편저 《日本の 歴史》 pp.45 ~ 46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65
久野健의 2人 共著 · 秦弘燮 譯 《日本美術史》 p.11
- 5) 明石染人 <天壽國繡帳の考察> 《東洋美術4》 1930 pp.109 ~ 112
明石染人 <天壽國繡帳の考察(續)> 《東洋美術5》 1930 pp.50 ~ 71
林幹彌 <天壽國繡帳復原> 《南都佛教8》 1960 pp.48 ~ 61

- 守田公夫編 《日本の美術 4-刺繡》 No. 59 昭和 46년 pp.19 ~ 23
김달수 著, 배석주 譯 《일본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 2》 대원사 1997 p.295
増田美子 《古代 服飾の 研究》 源流社 1995 p.129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p.22 ~ 23
- 6) 林幹彌 <天壽國繡帳復原> 《南都佛教8》 1960 p.48, p.58
- 7) 이춘계는 만다라수장의 자수는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이춘계 <正倉院의 자수>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일신사 1995 pp.235 ~ 240)
- 8) 關根眞降 《奈良朝服飾研究-圖録篇》 吉川弘文館 昭和49年 pp.247 ~ 249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上》 文化出版局 1989 p.54
- 9) 河鱈實英 《日本の服飾》 保育社 昭和55年 pp.103 ~ 104
- 10) 増田美子 《古代 服飾の研究》 p.145
- 11) 한상구 옮김 小林惠子 《天武天皇의 秘密》 고려원 1990 p.106
- 12)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 思文閣 昭和50년 p.40
- 13) 魯成煥 譯註 《古史記 上》 예전사 1987 p.65, 71
“伊耶那岐[南神]가 부정하고 더러운 나라를 다녀왔으므로 몸을 깨끗이 씻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帶 · 裳 · 衣 · 禪 · 冠을 벗어버렸다.”
《隋書》 <倭國傳> “男女 모두 裙 · 襦를 입었다.” (其服飾, 男子衣裙襦, 其袖微小, 履如屨形, 漆其上, 繫之於脚, 人庶多跣足, 不得用金銀爲飾, 故時衣橫幅, 結束相連而無縫, 頭亦無冠, 但垂髮於兩耳上, 至隋, 其王始制冠 以錦綵爲之, 以金銀鏤花爲飾, 婦人束髮於後, 亦衣裙襦, 裳皆有襪.)
- 14) 감은사지 東 3층석탑(국보제112호)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기외(外)함(높이 24cm, 폭19cm)의 동쪽 몸체에 조각된 것임.
국립중앙박물관 李浩官 미술부장은 ‘이 유물은 신라시대의 금속공예 기법이 최고 경지에 이른 7세기 중에서도 최고 걸작품으로 불교 조각사 및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라고 평가했다.

- 15) 장희태자(李賢) 묘의 벽화는 장희태자가 사망한 해(684)와 陪葬한 해에(706) 그려졌 것이며 烏羽冠을 쓴 使臣의 國籍은 新羅라는 설, 高句麗 유민이라는 설, 渤海라는 설이 있는데, 고구려 유민이나 震國(발해)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김희정의 설에 동의한다. (김희정 <草懷太子墓禮寶圖中 우리 나라 使臣 服飾> 《服飾 19호》 1992 pp.65~73)
- 16)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25
- 17) 關根眞降 《奈良朝服飾研究-圖録篇》 pp.164~165
- 18)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13
關根眞降 《奈良朝服飾研究-圖録篇》 p.164
丹野郁 編 《綜合服飾史事典》 p.259
増田美子 《古代服飾の研究》 pp.65~67
- 19)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20) 주9 참조
- 21)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25
- 22) 큰. 한국의 대님같은 것.
- 23) 増田美子 《古代服飾の研究》 p.145
- 2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篇》 文化出版局 1979 pp.49~54
- 25) 宋哲來 《鄉歌와 万葉集의 比較研究》 을유문화사 1991 pp.280~282
武部善人 《日本木棉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60年 pp.68~69
猪熊兼勝 <仏教文化の 來と浸透> 《服裝文化 No.153》 1977 p.4
- 26) 김미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97 pp.305~306
- 27) 増田美子는 《古代服飾の研究》 p.41 “古史記의 기록으로 보아 胡座에 앉은 모습은 首長層 계급이며, 곧 權力者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金井塚良 · 《人物植輪を語る》 さきたま出版會 1991 P.88 “화려한 의자, 의자에 앉은 인물은 倭送蒞禮의 주역이었던 왕자나 왕비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奈良大學 水野正好는 의자에 앉은 남·녀를 새로운 首長이나 그 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 28) 성덕태자쪽은 신라계 불교라는 것이 본인(우에다)의 해석인데 이유는 국보 제1호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소나무로 만든 것으로 경주에서 출토된 금동미륵상과 아주 유사한 신라양식이고, 옹고 있는 미륵상도 신라에서 가지고 온 불상을 秦河勝에게 주었다고 《일본서기》, 《聖德太子 轉補闕記》에 적혀있다.
- 29) 김달수 《일본속의 한국문화유적을 찾아서 2》 pp.295~307
- 30) 김미자 <우리나라 三國時代 衣服과 日本 衣服에 關한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P.83~84
- 31) 江馬務 《風俗史圖録別卷》 中央公論社 1989 p.17
- 32) 井筒雅風 《娑婆史》 雄山閣 1982 p.76 (이춘계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p.200에서 재인용)
- 任東權 《日本안의 百濟文化》 한국교류재단 1994
《アサヒグラフ増刊 3.20-弘法大師と密教美術》 朝日新聞社 1983
《日本の美術 3》第346호 東京: 至文堂 1995
《日本美術史全集 1-原始・飛鳥奈良時代》 美術出版社 1968
《中國敦煌壁畫展》 毎日新聞社 1982
掘越すみ 《日本衣服裁縫史》 東京: 雄山閣 昭和49年
金井塚良 · 《人物植輪を語る》 さきたま出版會 1991
西安古代金石拓本과 壁畫展 毎日新聞社 1980
세계역사씨리즈 《중국문화의 성숙》 東京: 세계문화사 1970
松島順正 <正倉院の衣服について> 《書陵部紀要24》 1972